



■ 목 차

시작하는 말 / 02

제1장 세계의 식량사정 / 03

제2장 한국의 식량사정 / 17

제3장 우리가 해야 할 일 / 33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 43

취지문 / 조직 / 실천강령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왜 해야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추진본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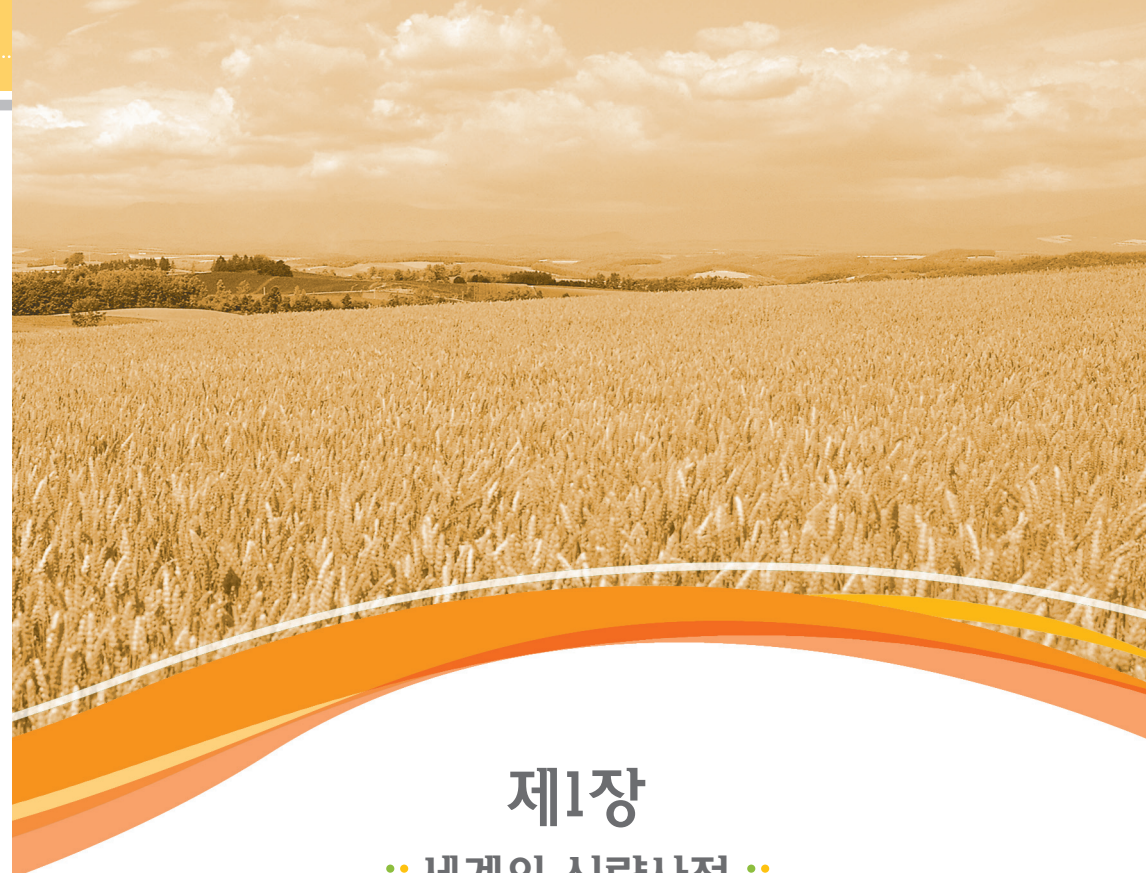
시작하는 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가지고 온 국민이 나눠먹고 살았다. 보릿고개도 있었고 국민의 상당부분이 영양부족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기와 우유와 같은 동물성 식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사료곡물을 수입하여 이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필요한 식량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무제한으로 사다 먹을 수 있었던 1990년대 이후 신세대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으며 음식은 항상 풍족했으므로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영양 과잉으로 비만 인구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특히 어린이들의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쌀의 소비 감소로 국내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자 연일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식량공급구조를 보면 전체 곡물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에너지로 볼 때 전체 식품 수요의 반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이처럼 낮은 경우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수준이며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한 나라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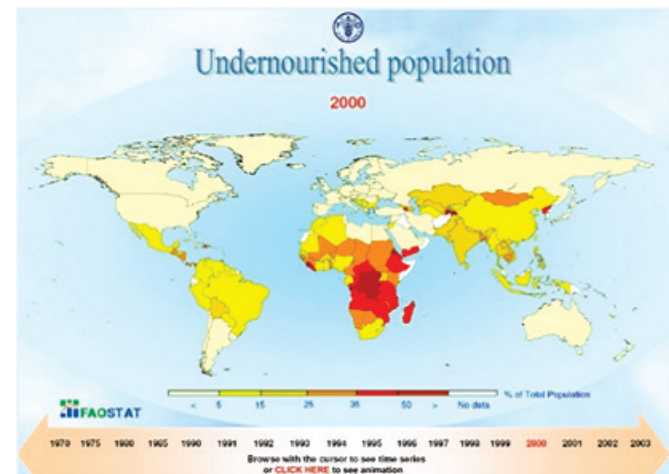
세계는 지금 앞으로 닥칠 식량부족 사태를 걱정하고 있으며 그 대비에 각 나라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잦은 기상 이변으로 식량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바이오에너지의 생산으로 곡물이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경제성장 하면서 우리와 같이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 세계시장에 나오는 곡물을 싸쓸이하는 블랙홀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제 돈이 있어도 사울 식량이 없는 시대가 곧 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식품가격이 폭등하여 가난한 나라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불안이 일어나 식량전쟁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안이하다. 대부분의 국민이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국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아직도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근거한 세계 열강들의 경제 질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우리의 내실을 등한히 하는 조류가 팽배해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식량을 마음대로 사올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하여 식량자급계획을 세우고 소비절약을 습관화하여 식량부족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식량의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식량자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실천해야 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어린이들까지 이 일에 동참하는 범국가적인 국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1장

세계의 식량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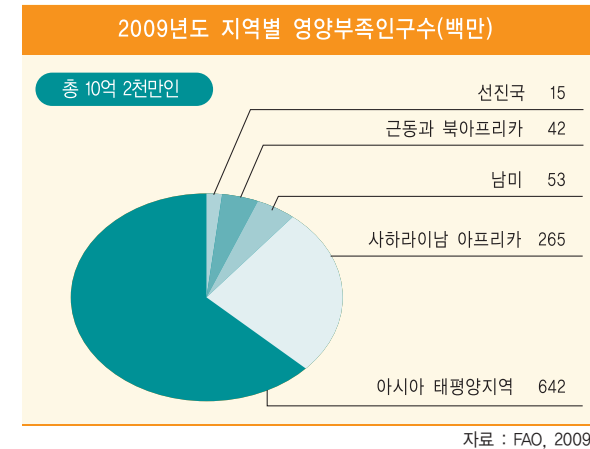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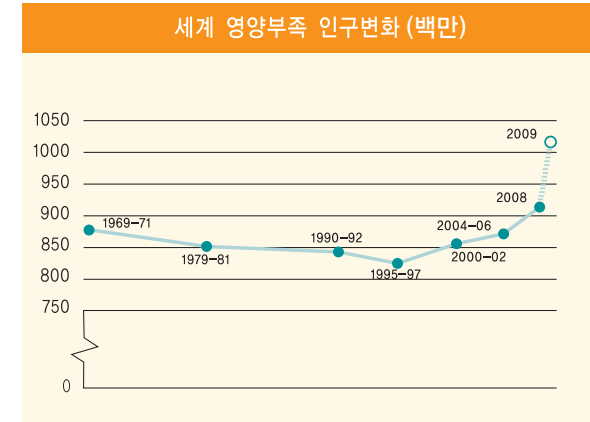


세계의 식량사정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영양부족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에 세계 영양부족 인구가 1억명이나 증가하여 10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아인구의 대부분이 아시아태평양지역(64%)과 아프리카지역(26%)에 분포되어 있으며, 매년 1천8백만 명의 5세 이하 어린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발전하면서 종래의 먼 나라 남의 일로 보이던 기아와 식량 부족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전세계적인 기아현상은 1970-1980년대에 일어난 녹색혁명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WTO 경제체제하의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부유한 국가들의 무절제한 식욕을 채우는데 소진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식량이 부족한데도 극심한 노동을 통해 커피 원두를 생산해 세계시장에 팔고 있고, 동남아의 가난한 농민들이 과실과 야자수와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대규모 영농으로 값싸게 생산된 외국의 농산물이 아무런 무역장벽이 없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약소국들의 농업 인프라가 붕괴되어 절대 식량부족국가로 전락한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 곡물시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세계 곡물가격이 오르면 기아와 사회불안을 겪는 신세가 되었다. 필리핀과 아프리카 가나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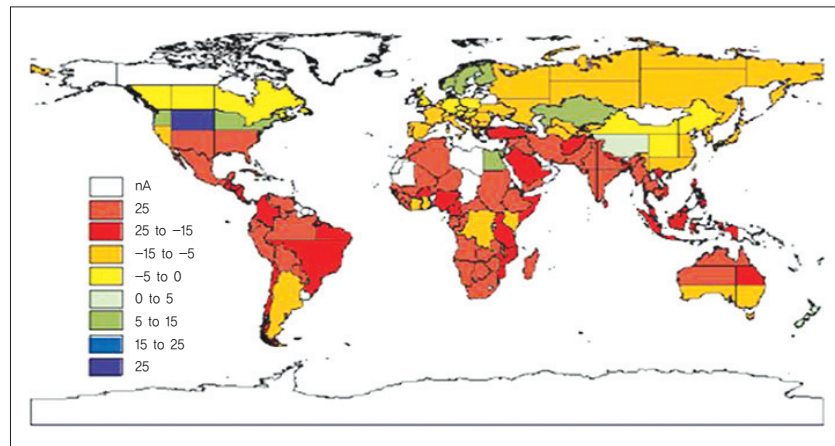
2007-08년 경험한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곡물가격은 계속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기후변화에 의한 식량 생산의 감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간 협력기구(IPCC)의 발표에 의하면 온실가스 효과 등으로 21세기 들어 지난 10년간 지구의 평균온도는 약 0.5℃ 증가하였으며 2015년까지 1℃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1℃ 오르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의 높이가 10-15 미터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 남태평양의 일부 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보도를 듣고 있다.

IPCC는 이대로 온실가스가 계속 생산되면 21세기 중 지구의 평균온도가 섭씨 5도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1세기 말에는 지금의 해안가에 있는 비옥한



자료 : Joachim von Braun, IFPRI, February 2008 (Cline 2007)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각국의 농산물생산의 변화(%) 예측 (2080년)

농경지가 대부분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는 잦은 기상 이변을 일으켜 최근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지적인 한발과 홍수가 자주 발생하여 식량생산을 어렵게 한다.



이미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사막화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으며 온도 상승으로 전통적인 농작물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기온상승으로 포도를 비롯한 과수의 생산 적지가 북으로 이동하고 있어 프랑스 포도주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2080년에는 세계의 곡물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온상승으로 지금은 추워서 버려진 러시아와 캐나다의 초지들이 밀밭으로 변하게 되어 북방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식량 생산은 오히려 증가하는 반면 남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인구수는 지금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식량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세계 곡물생산량의 변화 예측

	1990-2080	변화(%)
세계전체	-0.6 ~ -0.9	
선진국	2.7 ~ 9.0	
개발도상국	-3.3 ~ -7.2	
동남아시아	-2.5 ~ -7.8	
남아시아	-18.2 ~ -22.1	
아프리카	-3.9 ~ -7.5	
라틴아메리카	5.2 ~ 12.5	

자료 : Tubiello and Fischer, 2007

2.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동물성 식품 소비증가

경작할 수 없는 척박한 토지에 방목을 하여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식량생산 방법이다. 그러나 현대의 기업형 축산은 사람이 먹는 곡물을 가축에게 주어 고기와 우유, 계란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즉 인간과 동물이 곡물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1kg의 고기를 생산하려면 6-8kg의 곡물을 가축에게 먹여야 한다. 사료단백질 전환율로 환산하면 소의 경우 100g의 단백질을 먹고 이의 대부분을 운동과 배설에 써버리기 때문에 고기에 축적되는 것은 채 5g도 안 된다. 즉 쇠고기로 한 끼 배를 채우면 20인분의 식량을 한 번에 먹어치우는 꼴이 된다. 우리가 엄청난 양의 사료 곡물을 수입하여 곡물 자급률이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와 같이 동물성 식품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정 면적의 토지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수

동물의 사료단백질 전환율

동물생산	사료단백질 전환율(%)
쇠고기	4.8
돼지고기	12.5
닭고기	17.7
우유	22.9
계란	23.5

자료 : 박현진, 이철호, 2008

1인 1년분 식량(100만 kcal)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면적

식품의 종류	필요한 면적(ha)	식품의 종류	필요한 면적(ha)
고구마	0.04	대두	0.21
설탕	0.05	우유	1.10
쌀	0.07	계란	2.80
보리	0.11	닭고기	3.70
밀	0.13	소고기	6.80

자료 : 박현진, 이철호, 2008

가 달라진다. 한사람이 1년 동안 섭취해야 하는 열량(100만 킬로칼로리)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구마를 심으면 0.04헥타르, 쌀을 심으면 0.07헥타르, 콩을 심으면 0.21헥타르가 필요하지만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6.8헥타르가 필요하다. 최근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12억인)과 인도(10억인)가 빠르게 경제성장 하면서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90년부터 2006년 사이 우유 소비량이 도시지역에서 4배, 지방에서 2.9배 증가 했다. 육류소비는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히 증가 하였으므로 최근에도 농촌지역에서의 소비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식용 곡물(주로 쌀)의 소비는 급감한 반면,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미 곡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했으며 엄청난 양의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곡물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세계 곡물가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중국인의 식품 소비량 변화 (일인당 연간 소비량,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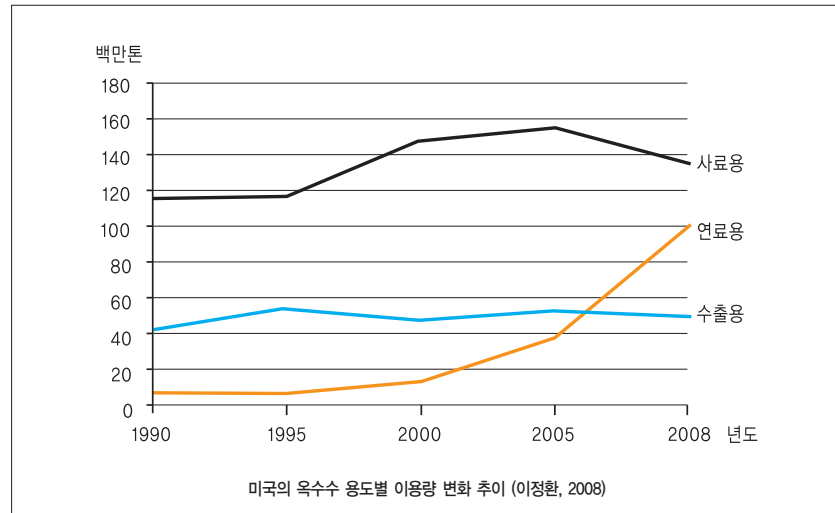
	도 시			농 촌		
	1990	2006	2006/1990	1990	2006	2006/1990
곡물	131	76	0.6	262	206	0.8
소, 돼지, 양고기	22	24	1.1	11	17	1.5
가금류	3	8	2.4	1	4	2.8
우유	5	18	4.0	1	3	2.9
수산물	8	13	1.7	2	5	2.4
과실	41	60	1.5	6	19	3.2

자료 : 중국 국가통계청, 2007

3.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의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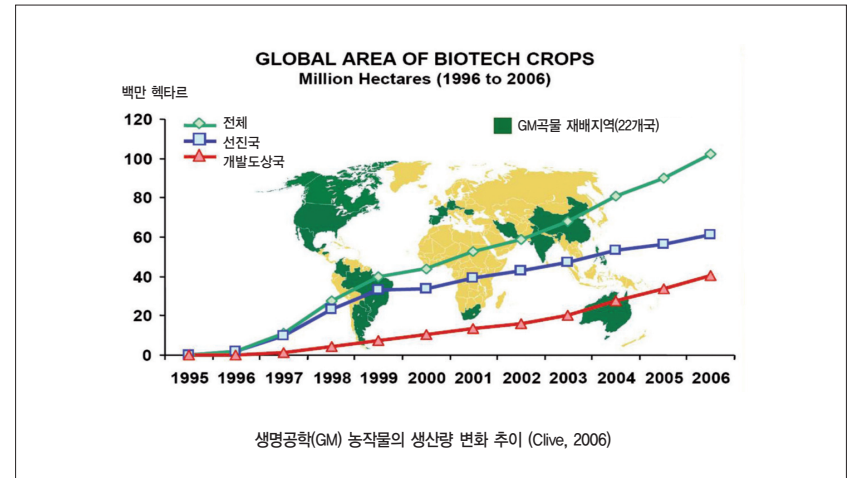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불을 넘으면 옥수수를 발효하여 에탄올을 생산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 2007-08년도의 유류파동으로 미국에서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곡물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이 2008년도에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1/3로 급증하면서 세계 곡물가격이 2-3배로 오른 것이다.

석유의 고갈로 앞으로 원유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바이오연료의 생산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벧짚이나 세룰로오스를 분해하여 알코올을 생산한다면 더 없이 좋은 방법이나 현재의 기술로는 경제성이 없고 앞으로 상당기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연료의 생산은 식량 공급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는 세계 식량의 2%-5%를 바이오연료 생산에 소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한 식량생산의 획기적인 증가와 효과적인 저장기술의 개발이다. 과학자들은 생명공학에 의한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을 상당 수준 성취하였으며 생명공학(GM)식량의 생산이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20세기 새로운 에너지로 개발된 핵에너지를 이용한 식품저장(IR) 기술이 상용화 되어 부패 변질되어 버려지는 식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식중독이나 유해 미생물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 이 이들 기술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 이용이 늦어지고 있다.



식량을 대규모로 경작하는 나라에서는 병충해 예방이나 제초제에 잘 견디는 종자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농민 80명이 경작하는 땅을 혼자서 경작해야 하는

미국 농민이 호미로 김을 땄을 수 없는 것이다. 비행기로 농약과 비료를 뿌려야 하는 대규모 농장에서 살포한 제초제에 살아남을 수 있는 GM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GM작물의 재배가 급속히 늘어나 미국의 경우 재배되는 콩과 옥수수의 80-90%가 GM 작물이다. 세계 곡물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생산되는 콩과 옥수수의 대부분이 GM작물이므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식량은 크게 제한 받게 되며 비싼 값으로 사올 수밖에 없다.



“식품의 방사선조사(irradiation) 기술은 기아와 식인성 질병에서 세계를 구할 수 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2003년 IMRP, 시카고) -

5. 무역자유화 시대 식량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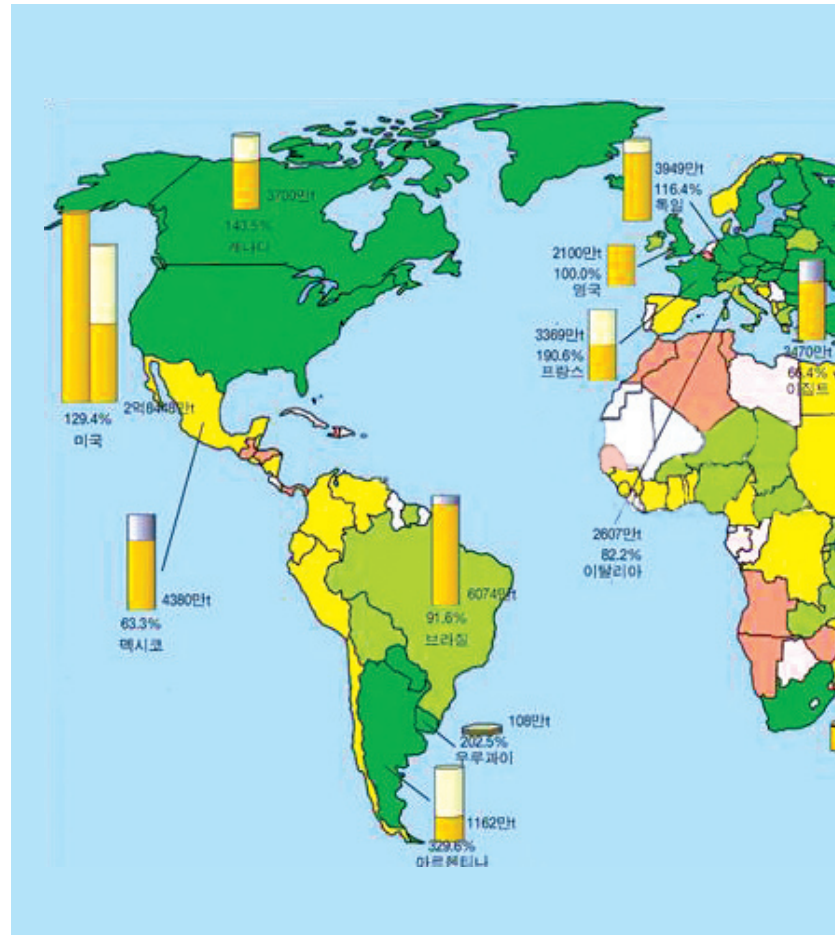
WTO 이후 세계 각국의 식량사정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분류된다. 식량 자급률이 100%를 넘는 나라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호주, 태국 등은 곡물 수출이 용이해져서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반면 한국, 일본, 멕시코와 같은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신흥 공업국들은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농업 인프라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식량이 부족하고 구매력도 없는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사정은 심히 악화되어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양의 잉여농산물을 세계시장에 팔고 있는데 세계 곡물시장의 60-70%를 공급하고 있다. 그 다음은 아르헨티나, 프랑스, 호주, 캐나다가 주요 곡물수출국이며 태국은 쌀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양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양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제성장으로 곡물수요가 급증하여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의 수요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거나 수출의 여지는 별로 없다. 이것이 식량의 특수성이다. 식량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무제한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토지에서 생산된 식량을 그 나라 국민이 먹고 남는 것을 세계시장에 내다 파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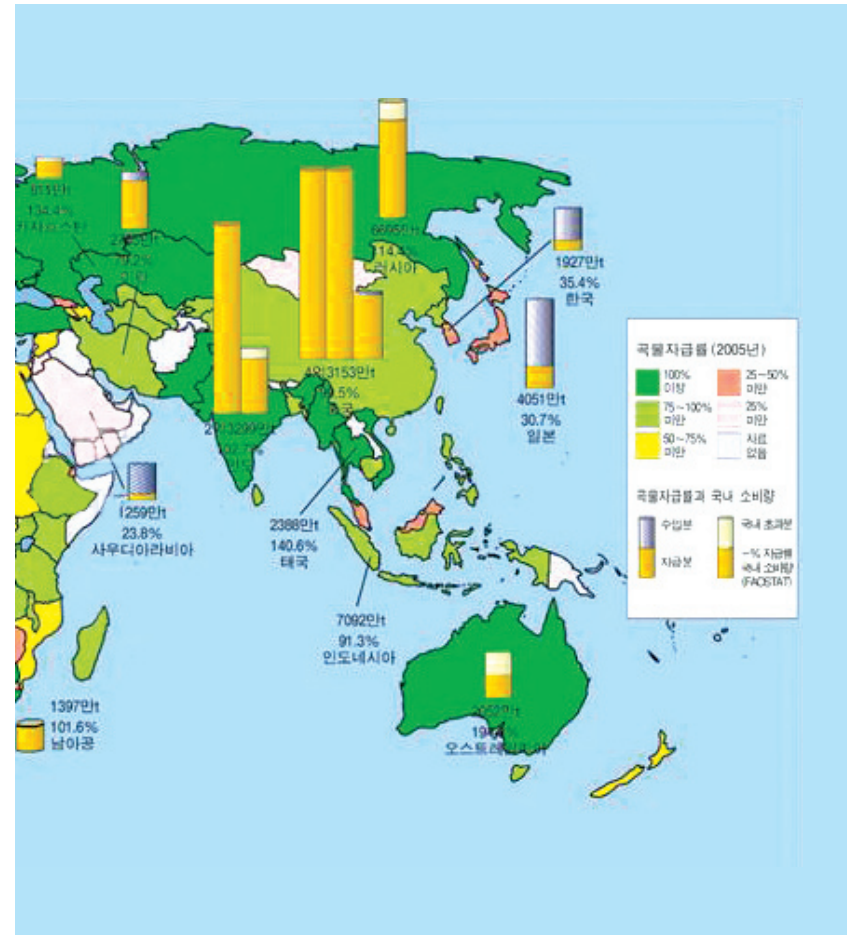


이다. 한국과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식량자급도가 낮은 나라들로 필요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식량전쟁이 가시화되면 이들 나라들이 가장 심각한 위협에 빠지게 된다.



세계 각국의 곡물생산량과 자급률(2005)

이 외에도 세계의 식량난을 부추기는 요인들로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한 곡물시장의 교란, 유가급등에 의한 농업생산비 및 수송비의 증가, 지구촌 교류확대에 의한 구제역, AI등 가축 전염병의 증가 등 위험 요소들이 겹겹이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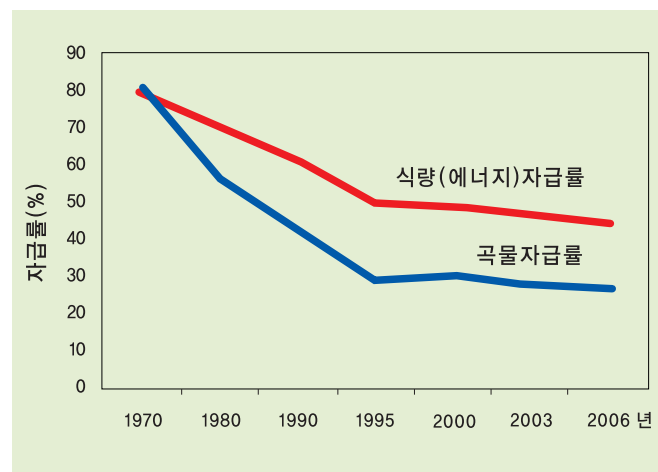


자료: 식품음료신문, 2008



제2장

❖ 한국의 식량사정 ❖



1960년대 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가난하여 모자라는 식량을 외국에서 사올 능력이 없었으므로 모자라는 대로 나눠 먹고 살았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겪었으며 영양실조 인구가 적지 않았다. 아침인사가 '밥 먹었냐?'였으니 그 시대 우리의 식량사정을 알만하다. 70년대에 시작된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입된 소비재는 식량이었으며, 1970년도 곡물자급률은 80.5%로 식용 쌀은 93%, 밀 15%, 콩은 86%를 자급하고 있었다. 특히 주식인 쌀은 세계적인 녹색혁명의 혜택을 받아 1980년대 중반에 통일벼를 개발하여 단보당 수량을 2배이상 올림으로서 쌀의 자급을 실현하였다. 그 이후 계속된 품종개량으로 식미에서도 재래종쌀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여 1990년대에는 완전한 쌀의 자급을 달성하였다. 쌀은 곧 식량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쌀의 자급은 식량정책의 완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1. 80년대 이후 식량자급률 급감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육류와 우유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료곡물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도에는 전체 곡물자급률이 56%로 급감한다. '80년 중반에 시작하여 1994년까지 계속된 우루과이협상 기간 중 유럽과 일본 등은 앞으로 전개될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쓴 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었을 때 영국, 독일 등 곡물 수입국들이 자급을 달성했으며 일본은 자급률 30%를 필사적으로 지켜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곡물자급률 50%대에서 29.1%로 하락하고 말았으며 2006년에는 26.6%로 떨어졌다. 쌀의 자급은 이루어졌으나 밀과 옥수수는 거의 전량 수입하게 되었고 식용콩의 자급률도 35% (사료용 포함 자급률 1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식품 품목별 자급률 추이 (%)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3	2006
곡물(전체)	80.5	56.0	43.1	29.1	29.7	27.8	26.6
곡물(사료제외)	86.2	69.6	70.3	55.7	55.6	53.3	51.3
쌀	93.1	95.1	108.3	91.4	102.9	97.4	99.4
밀	15.4	4.8	0.05	0.3	0.1	0.1	0.2
콩	86.1	35.1	20.1	9.9	6.4	7.3	11.3
채소	100.2	100.2	98.9	99.2	97.8	97.3	92.2
과일	100.2	98.6	102.5	93.2	88.5	88.9	82.7
우유	-	109.7	92.8	93.3	81.0	81.0	72.4
육류	100.0	97.8	90.0	84.6	78.8	70.8	72.2
계란	99.2	100.0	100.0	99.9	100.0	100.0	99.4

주 : 1) 쌀, 밀, 콩은 사료용 포함한 전체자급률 기준.

2)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은 식품수급표 기준.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식품수급표」, 2007.

2. 쌀의 소비량 감소

쌀이 남아도는 주요 원인은 쌀의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쌀 이외의 다른 먹거리가 싼값으로 수입되고 가공되므로 쌀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초까지 국민 한사람이 1년간 소비하는 쌀은 130kg이었으나 2007년에는 77kg으로 거의 1/2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에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은 6·25 전쟁 중에 미국의 원조로 밀가루를 먹기 시작했고, 70년대부터 생산된 라면의 등장으로 제2의 주식이 되어 현재 1인당 연간 34kg을 소비하고 있다. 70년대까지 쌀 다음으로 중요했던 보리쌀의 소비는 80년대에 급격히 감소하여 지금은 거의 먹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많이 먹는 곡물은 콩인데 연간 1인당 9kg에서 거의 변함이 없다.

한국인 식량의 1인당 연간 소비량 변화 (Kg)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곡류	219.4	195.2	167.0	160.5	153.3	135.5	132.5
쌀	136.4	132.4	119.6	106.5	93.6	80.7	76.9
밀	26.1	29.4	29.8	33.9	35.9	31.8	33.7
보리쌀	37.3	13.9	1.6	1.5	1.6	1.1	1.1
옥수수	1.1	3.1	2.7	3.3	5.9	4.9	4.6
콩	5.3	8.0	8.3	9.0	8.5	9.0	8.9
서류	10.2	6.3	3.3	3.0	4.3	4.2	3.3
기타	3.0	2.1	1.7	3.3	3.5	3.8	4.0

자료 : 농림수산 식품 주요통계, 2008

3. 전체 식량에너지 자급률 45% 미만

2005년 현재 섭취열량의 식품 종류별 구성을 보면 곡류가 약 50.2%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유지류 15.4%, 축산물류 11.2%, 설탕류 7.5%, 두류4.1%, 어패류 등 해산물 3.9%, 그리고 채소와 과일이 각각 3.9%와 2.3% 순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5년(1970-2005) 동안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섭취 열량의 변화를 보면 곡류가 76%에서 약 50%로 감소한 반면, 유지류가 1.4%에서 15.4%로 약 13배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2.8%에서 11.2%로 약 4배 증가 하였으며, 설탕은 2.9%에서 7.5%로 2.3배, 해산물은 2.1%에서 3.9%로 1.3배, 채소와 과일은 2.8%에서 5.8%로 1.6배 각각 증가 하였다.

국민 1인당 연간 섭취 열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곡류의 열량 공급 구성으로는 쌀 56.6%, 밀가루 21.0%, 기타곡류 22.1%로 구성되어 있다. 열량 공급 비율의 11%를 담당하는 축산물은 육류 60.6%, 우유 29.7%, 그리고 계란이 10.2%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가축사료로 소비하고 있는 곡물의 비중은 총 곡류 소비량의 48%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사료 곡물의 9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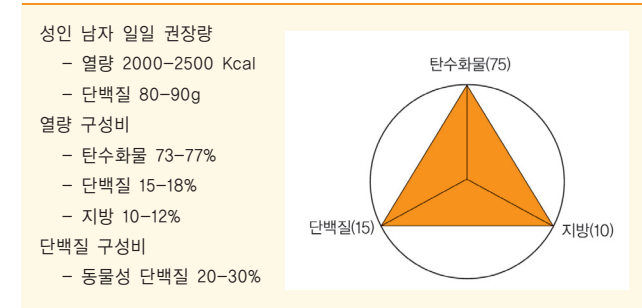
전체 식량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으로 낮아지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설탕, 유지류, 그리고 수입 사료로 생산되는 육류와 우유류가 식량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식량에너지의 자급률을 45%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육류와 우유와 계란이 수입 곡물에 의해 생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순수한 자급이라고 볼 수 없다.

4. 열량구성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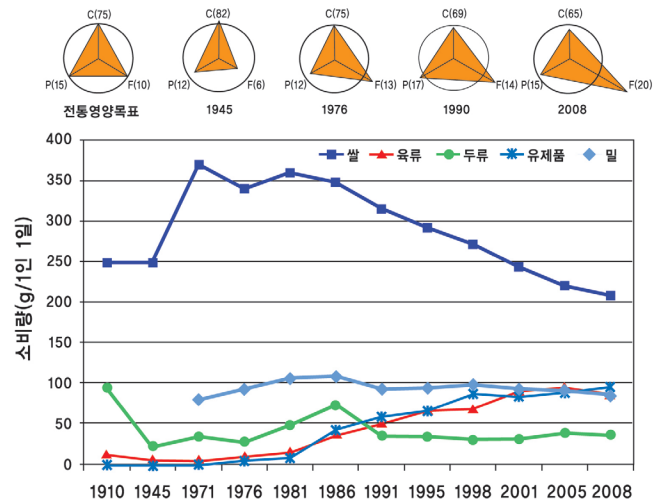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콩으로부터 부족되는 단백질을 섭취하여 왔다. 찹 반상 구성에서 보여진 우리 전통 식단이 추구했던 한국인의 영양 목표는 성인남자 일일 섭취 열량 2000~2500Kcal, 단백질 80~90g(동물성 단백질 20~30%)이었으며, 열량구성비는 탄수화물 75%, 단백질 15%, 지방 10% 수준으로 판단된다. 2차대전 말기와 6·25동란 기간 중의 극심한 식량난 상황에서 이 비율은 82:12:6으로 악화되어 쌀, 보리 등 곡물 이외에는 별로 먹을 것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개발로 부족한 식량을 수입할 수 있게 된 1970년대 후반에 와서야 이 비율은 75:13:12로 개선되었다. 아마도 우리 국민은 이 시기에 가장 건강하고 합리적인 식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유지류와 육류, 우유류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열량구성비는 크게 변하여 지방의 섭취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현재 우리 국민의 지방에너지 섭취비율은 20%에 달하여 우리의 전통식단에서 추구하던 영양목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지방의 과다섭취는 쌀 소비량의 감소와 육류, 우유류의 소비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 전통 표준 식단에서 제시된 한국인의 영양목표



자료: 이철호, 류시생, 1988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제분협회

한국인의 1인 1일당 주요 식량의 소비량 및 에너지 구성비 변화

5. 동물성식품 소비의 증가와 국민 건강의 악화

1980년 이후 5년 동안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크게 변하여 1인당 1일 동물성식품 섭취량이 98g에서 183g으로 5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 하였다. 특히 육류가 79g에서 119g으로, 우유류가 10g에서 43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1980-1986) 동안 국민건강보험에 기록된 암환자 수는 2.3배, 당뇨병 환자 5.3배, 고혈압 환자 2.6배, 심장병 환자수가 3.3배 늘어났다.

동물성 식품의 소비 증가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되어 1995년에는 230g, 2005년도에는 279g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 식품섭취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1980년도에 하루에 1인당 약 1kg의 음식을 섭취하였는데 2005년에는 1.3kg을 먹어 평균 섭취량이 25년간 3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식사량의 증가와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는 국민 건강의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인의 식품섭취량과 동,식물성 구성비 변화 (g/capita/day)

연도	총섭취량	식물성식품(%)	동물성식품(%)
1970	1035	935(92.1)	82(7.9)
1975	922	850(92.2)	72(7.8)
1980	1061	963(90.8)	98(9.2)
1985	1050	867(82.6)	183(17.3)
1990	1048	850(81.1)	198(18.9)
1995	1101	871(79.1)	230(20.9)
1998	1290	1042(80.8)	248(19.2)
2001	1314	1053(80.1)	262(19.9)
2005	1291	1013(78.4)	279(21.6)
2008	1293	1034(80.0)	259(2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국인의 사망원인 변화 추세를 보면 1989년에서 2009년 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34% 증가하였는데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4배, 대장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3.7배나 많아졌다. 유방암과 대장암이 과다한 육류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당뇨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품에너지의 과다섭취 및 운동량 부족과 관계가 있다. 이처럼 식량의 과다섭취 특히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는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떨어뜨려 식량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의 악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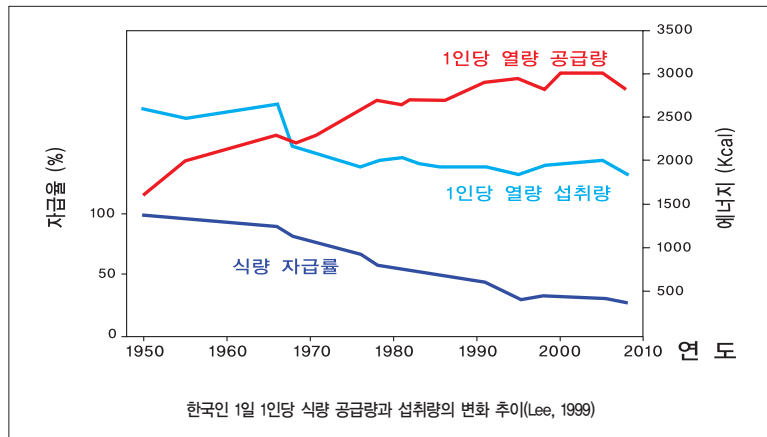
한국인 사망원인의 변화 양상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

	1989	1998	2006	2009	1989대비 2009년 변화률(%)
순환기계통 질병	161.5	123.7	111.8	109.3	-32.3
암	105.0	110.8	134.0	140.5	33.8
위암	31.7	23.9	22.0	20.4	-35.6
간암	23.6	20.0	22.4	22.6	-4.2
유방암	1.6	2.1	3.3	3.8	137.5
대장암	3.9	7.0	12.8	14.3	266.7
당뇨병	9.4	21.1	23.7	19.6	108.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6. 식량의 낭비 풍조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져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심각한 식량 낭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였던 1970년대 이전에는 식량 수급표에서 공급된 열량보다 국민영양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실제 섭취한 열량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식량 부족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구황식품을 섭취하므로 통계에 잡힌 공급량 보다 섭취량이 많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자라는 식량을 수입하면서 공급량은 섭취량보다 웃돌게 되고 우리의 식생활이 크게 변한 '80년대 말에는 섭취량이 공급량의 70%를 밀돌게 된다. 식량의 공급량과 실제 섭취량의 차이는 대부분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의 약 30%를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심각한 식량낭비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먹는 상황에서 거의 1/3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우리의 식사행태는 비경제적이고 고비용의 동물성 식품을 과다 섭취하고 많은 양의 식물성을 버리는 낭비적 구조로 변화해 감으로서 우리의 식량사정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의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7. 쌀시장 개방 시 국산 쌀의 국제경쟁력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의한 의무 쌀 수입량이 이미 연간 30만톤을 넘고 있으며 2차 협상이 끝나는 2014년에는 40만톤을 강제 수입해야한다. 하루라도 빨리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시장이 개

방되면 외국에서 밀려들어오는 고급 쌀에 밀려 국산 쌀의 소비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쌀 시장이 개방되기 10여 년 전부터 일본쌀의 식미를 높이고 품질을 규격화하고 일본쌀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쌀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쌀이 그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양질의 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쌀시장이 개방되면 우리의 벼농사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 교역국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식품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는 것이다. 불량만두사건, 김치 기생충알사건, 쥐머리과자사건, 광우병쇠고기 반대시위 등 대형 식품안전 논란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연달아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근거 없는 주장과 과장 보도로 GM식품, 조사(IR)식품 등 신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 알권리 주장을 내세워 식품의 의무표시 사항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식량자원의 폭넓은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식량을 자급하고 있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표시제도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수입 식량의 가격을 올리고 사 올 식량이 없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9. 세계 시장에서 식량거래 능력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곡물의 대부분이 일본 등 외국의 중간거래상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카길이나 ADM 같은 곡물메이저에 의해 세계의 식량유통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중간거래마저도 외국의 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은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며 식량수입에 엄청난 추가 거래비용을 써야 하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을 1%라도 높여야 하는 절실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곡물거래에서 우리가 이처럼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선물거래 시장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정보능력과 노련한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그동안 시장주변에서 구경꾼으로서 있었던 것이다.



어오고 있다. 카길이나 ADM 같은 곡물메이저에 의해 세계의 식량유통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중간거래마저도 외국의 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은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며 식량수입에 엄청난 추가 거래비용을 써야 하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을 1%라도 높여야 하는 절실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곡물거래에서 우리가 이처럼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선물거래 시장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정보능력과 노련한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그동안 시장주변에서 구경꾼으로서 있었던 것이다.

10. 식량안보정책의 수립과 실천

우리 정부는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너무 많고 국회와 감사원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여념이 없는 게 현실이다. 식량안보의 문제는 비상시에 대비한 단기적 대처방안과 행동지침(매뉴얼)을 마련하는 협의의 식량안보대책과 10년, 20년 앞의 식량사정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광의의 식량안보정책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단기적인 식량안보대책이나 장기적인 식량안보정책 모두가 부실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식량안보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국민에게 교육하고 숙지하게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식량안보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2010년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한국과 일본의 2015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보면 일본은 모든 식품류에서 현재 자급률보다 자급률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부분의 식품류에서 현재 자급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여 지금보다 낮게 잡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이 식량자급률 향상에 관심이 없고 의지도 없는 이유는 국민이 식량안보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로 잡고 식량자급을 실천하려는 국민적 의지를 일깨우는 일이 시급하다.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품목	한국		일본	
	2008	2015	2008	2015
쌀	94.3 ↘	90	95 ↗	96
맥류	7.3 ↘	4.0	12.5 ↗	14.5
두류	29.5 ↗	42.0	6 →	6(?)
채소류	95.1 ↘	85.0	82 ↗	88
과일류	84.8 ↘	66.0	41 ↗	46
육류	71.7 ↘	71.0	56 ↗	62
계란류	99.6 ↗	100	96 ↗	99
칼로리자급률	48.7 ↘	47.0	41 ↗	45

※ 일본의 두류 목표치는 현재 30%에서 2020년 60%로 상향조정되고 있음.
 자료 : 2010년도 국정감사자료



제3장

∴우리가 해야 할 일∴





건강을 위해 신선한 제철음식과 근처 식품을 먹는다.

자연식, 건강식이란 주변 산야에 자생하거나 근처 텃밭에서 키운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철따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압이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 자연식으로 병을 고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자연과 동화하는 신토불이의 원칙이다. 건강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변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음식을 먹도록 하자. 이것은 동시에 식량자급을 달성하는 기본이며 지름길이다. 모든 음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잘 지킴으로서 건강에 좋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건강과 활력을 위해 아침밥을 꼭 먹는다.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나쁜 습관은 밤늦도록 폭식하고 아침을 거르는 것이다. 저녁의 폭식은 주로 기름진 육식과 음주인데 이 습관이 오래되면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게 된다. 쌀밥을 중심으로한 조반은 일반적으로 기름지지 않고 된장국과 김치를 곁들인 담백한 건강식이다. 하루에 한번은 이렇게 정성이 담겨진 집에서 차린 밥을 먹어야 한다. 활기찬 하루 일과를 위해서 그리고 쌀의 소비 증진을 위해서 아침밥을 꼭 먹자. 쌀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쌀, 밀, 옥수수 모두 전분을 공급하는 재료이며, 쌀밥이 아니라 이와 곁들여 먹는 기름진 반찬을 과식해서 살이 찐 것이다. 바람직한 한국식 아침밥 상차림 모델을 정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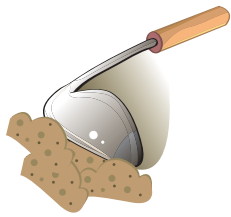
음식을 아껴먹고 잔반을 줄여 음식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식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랫사람들이 먹도록 밥을 남겨야 했던 우리의 전통 미덕이 남긴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엄청난 양의 음식을 버리고 있다. 음식을 먹다 남겨 버리는 것은 죄악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이 시대에 맞는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한다. 한 알의 밥알이라도 이를 생산하기 위해 애쓴 농부의 노고를 생각해서 아껴 먹었던 우리 선현들의 높은 뜻을 되살려야 한다. 단체급식이나 요식업소에서도 먹을 만큼의 음식을 제공해서 잔반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식품산업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버리는 폐기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이들 식품을 위생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텃밭과 가정 주변에서 필요한 채소를 가꾸어 먹는다.

도시 주변에는 버려진 텃밭이 많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마당에 화분을 놓아 야채를 키워 먹을 수 있다. 집집마다 이런 식으로 야채를 키워 먹는다면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집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울 수 있도록 기구를 개발 생산해서 널리 보급하고 재배기술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주말농장 동아리를 권장해서 생산적이고 사교적인 사회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스스로 음식 재료를 생산해 보면 식량을 아끼는 마음도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국민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유희지를 경작하고 이모작을 실천하여 식량 증산에 힘쓴다.

우리 농업의 채산성이 떨어져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경작을 포기하는 땅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영농 인구의 고령화로 문전옥답마저 경작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모든 경작지에 대한 환경개선 기여금 지불을 제도화하여 농민이 국토 관리에 기여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화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체에서 탄소배출권을 농민으로부터 사들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농 후계자들의 기업형 영농체제를 지원하여 유희지 경작, 이모작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식량 증산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농업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민이 원료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에 참여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실현해야 한다.



국산 쌀의 식미와 품질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어 국민이 즐겨 먹는 주식이 되게 한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관련 학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입맛에 맞고 수확량이 높은 우수한 벼 품종들이 다수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도정하여 규격화하고 상품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국산 쌀은 아직도 품질과 관계없는 지역명칭으로 판매되는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쌀 시장이 개방되면 최고의 품질로 규격화된 일본쌀과 미국쌀에 밀려 우리의 논농사는 무너지게 된다.

하루속히 품종과 도정 규격으로 등급화된 국산 쌀의 유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벼 품종의 식미 특성에 따라 또한 도정미의 쌀래기(분쇄미) 함량에 따라 품질등급을 매겨 판매 유통하면 외국의 최고급미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우리의 고급쌀을 찾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국산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여 세계인이 선호하는 한국음식을 만든다.

한국인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고 식품안전 관리가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산식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임으로서 국산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입식품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다. 고성군의 유기농 쌀 재배와 같이 기능성 고가의 식량을 생산한다면 우리 농업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 농업 강소국의 길이 여기에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식량을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는 고가의 기능성 식량자원을 생산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가공 식품도 국내에서 생산 되는 제품은 안전성이나 기능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여 세계 시장에서 고급식품으로 팔리도록 해야 한다.



식품산업을 식량공급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 육성하는 사회를 만든다.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들 식량자원을 발굴하고 수입하고 가공하여 유통하는 일을 식품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식품산업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국제화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 우리 식품산업의 기능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식품산업의 비의도적 실수를 최소화하기 보다는 그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식품산업을 네슬레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여 식량전쟁의 시대에 우리의 식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첨병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생물유전자원과 주변 해역의 어족을 보존하여 지속적인 식량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한반도는 생물 유전자원이 다양하기로 유명하다. 콩의 야생품종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벼를 비롯한 고급 농산 자원의 유전자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주변해역에는 다양한 어족들이 모여 있어 식량자원의 유전자 보고이다. 이들 생물유전자원을 수집 보존하여 종자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희귀자원의 서식과 증식을 도모하고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육성을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농어촌을 삶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국민이 된다.

농어업은 식량생산의 기능 이외에도 국토를 관리하고 환경을 정화하여 삶의 터전을 유지 관리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해야 한다. 오늘의 도시화 공업화 사회에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은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상수도를 설치하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 국토에 깨끗한 공기와 물을 흐르게 하려면 국민들이 농업,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농업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농촌에서 국토를 경작하고 관리하는 농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 근로자보다 잘사는 농민, 젊은이들이 모이는 농촌을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Kent, George, Ending Hunger Worldwide, Paradigm Publishers, VA, USA(2011)
- (2) FAO,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2009)
- (3) Godfray, H.C.J. et,al., Food security: The challenge of feeding 9 billion people, Science, vol.327, 812-818(2010)
- (4) Joachim von Braun, The world food situation: New driving forces and required actions, International Food Policy Institute, Washinton D.C.(2007)
- (5) Khor, Martin, Food crisis, climate change and importance of sustainable agriculture, Third World Network(2008)
- (6) Tubiello, F.N. and Fischer, G., Reducing climate change impacts on agriculture: Global and regional effects of mitigation, 2000-2080,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4, 1030-1056(2007)
- (7) Lee, C.H.,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food security situation in Korea, Food Science and Industry, 32(2) 70-79(1999)
- (8) Clive, James,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06, ISAAA, 35(2006)
- (9) 박현진, 이철호; 식품저장학, 고려대학교출판부(2008)
- (10) 이정환; 식량위기, 그 실상과 대책, 제55회 한림원탁토론회(2008)
- (11) 이철호, 주용재, 안광옥, 류시생; 지난 1세기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영양상태의 추이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4):397-406(1988)
- (12) 이철호, 류시생; 한국전통식단의 영양가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275 - 280(1988)
- (13) 이철호, 문헌팔, 최양도, 김용택;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연구보고서(2009)
- (14) 최지현; 우리나라 식량자급실태와 자급률 제고방안, 농어촌과 환경, 99, 14 - 23(2004)
- (15) 최지현 외;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6)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

취지문 / 조직 / 실천강령

FOOD ACTION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취지문

세계의 식량사정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잦은 기상이변과 중국, 인도 등 신흥 중진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동물성 식품의 폭발적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의한 식량자원의 오용 등으로 세계 곡물시장에서 돈이 있어도 사올 식량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식량부족을 예감한 각 나라들이 식량 수출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량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곡물의 70% 이상, 전체식량의 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에 대한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체 식량의 30%도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남아도는 것을 전체 식량이 아주 풍족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식량증산이나 소비절약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이제 더는 우리의 식량문제를 방치하여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취약한 식량공급 구조를 국민에게 알리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각자가 식량낭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는 일에 동참하여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난에 대비하는 자기 몫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까지 식량부족의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모든 분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식량자급률 1%를 높이기 위해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각자 할 일을 정하여 실천하는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공동대표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조직

고문

권태원(인제대 명예교수)	김학용(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이현구(대통령과학기술특보)	전중윤(삼양식품 명예회장)
정길생(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최인기(국회 농수산식품위원장)
홍일식(한국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	

공동대표

장태평(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황민영(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추진위원

김경주(대한영양사협회 회장)	김향숙(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회 회장)
남상만(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	박인구(한국식품공업협회 회장)
신경림(대한간호협회 회장)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양재의(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	이덕수(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항기(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황이남(한국식품기술사협회 회장)	

후원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민운동 실천강령

- 건강을 위해 신선한 제철음식과 근처 식품을 먹는다.
- 건강과 활력을 위해 아침밥을 꼭 먹는다.
- 음식을 아껴먹고 잔반을 줄여 음식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한다.
- 텃밭과 가정 주변에서 필요한 채소를 가꾸 먹는다.
- 유희지를 경작하고 이모작을 실천하여 식량 증산에 힘쓴다.
- 국산 쌀의 식미와 품질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어 국민이 즐겨 먹는 주식 이 되게 한다.
- 국산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여 세계인이 선호하는 한 국음식을 만든다.
- 식품산업을 식량공급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 육성하는 사회를 만든다.
- 생물유전자원과 주변 해역의 어족을 보존하여 지속적인 식량생산을 가능하 게 한다.
- 농어촌을 삶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국민이 된다.



발행인 : 이철호

발행기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발행일 : 2011년 3월

편집디자인 : 모든디자인



비매품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북지) 206호 (우136-713)
Tel. 02-929-2751 Fax. 02-927-5201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www.foodsecurity.or.kr



ISBN 978-89-962238-4-9